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환경분야 대책



김 경 식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필자약력〉

- 경기도
- 서울대 경제학과
- 미)하버드대 행정학과(석사)
- 과학기술처 : 공보관실, 기술진흥담당관실
- 상공부 : 국제협력과, 총무과, 무역정책과,
- 대통령비서실 : 비서실장실
- 상공자원부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파견
- 산업자원부 : 화학생물산업과장, ASEM준비기획단 파견, 아주 협력과장, 유통서비스산업과장, 유통서비스정보과장, 산업기계과장, 산업정책과장, 국무조정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견, 미국 스탠포드대후버연구소 파견, 환경부 파견(이사관)

■ 들어가는 말

지난 100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0.6℃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홍수, 가뭄, 극지방 빙하감소 등 이상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심각한 건강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는 국제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세계 각국이 지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구함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가 커지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1999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온실가스감축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동향

국제사회는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하였고, 금년 2월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교토의정서(우리나라는 2001년 비준)를 발표시켰습니다. 교토의정서가 공식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 교토메카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U 등에서는 차량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역내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현재 186g/km에서 2012년까지 120g/km로 강화하는 자발적 협약을 우리나라 및 일본 자동차업체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한 미국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동부의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차량에 대해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없으나 2002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9위,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세계 23위 수준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이며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틀이었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는 논리 앞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요 온실가스 감축대책

주요 환경부문 대책으로는 첫째, 온실가스에 대한 체계적 통계체계의 구축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구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TMS(Tele-Metering System) 등 기존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에서 구축해 온 인프라를 적극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할 것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교토메카니즘은 현재 의무감축국인 선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감축수단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감축수단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배출권거래 등록시스템 및 검증시

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내·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통합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인프라와 정책들에 온실가스를 포함시켜 관리하여 온실가스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지구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고 창출될 환경기술과 산업부문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공동 개발과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은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철저히 연구·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홍보 사이트(www.gihoo.or.kr) 운영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방식이 적용되도록 적절한 대의 협상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멕시코, 중국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환경청 주관의 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 참여 등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맺는말

지구온난화 방지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

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하면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직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야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앞에서 말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교토메카니즘 이행기반 구축,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산업계는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의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지면 산업 경쟁력이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과정에 포함시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생산시설 및 공정으로의 교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에너지 및 자원절약의 실천, 폐기물재활용 적극 참여, 나무심고 가꾸기 적극 추진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전시회 한국참관단 모집 안내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일본 오사카 NEW EARTH 2005」 및 「중국 상해국제공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이와 함께 전시회를 통해 양국의 환경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한국참관단(2박3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환경시장규모가 일본은 2010년 47조 2천억엔에서 2020년에는 58조 4천억엔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또한 최근 수년간 환경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및 중국시장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10월 7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명 구분	일본 오사카 국제환경박람회 (New Earth 2005)	중국 상해 국제공업박람회 (Shanghai International Industry Fair 2005)
참관기간	10. 26(수) ~ 28(금) <2박3일>	11. 4(금) ~ 6(일) <2박3일>
전시기간	2005. 10. 26 ~ 10. 29	2005. 11. 4 ~ 9
장소	인텍스 오사카	상해신국제전람
개최규모	22,000㎡	85,500㎡
전시품목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관련 전분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관련 전분야
관람예상인원	50,000명	500,000명
한국관 참가규모	15부스(135㎡)	15부스(135㎡)
관람예상인원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 참관단 신청 마감 : 2005. 10. 7(금)

- 참관단 일정,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epa.or.kr>, www.envex.or.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본부 ☎ 02-2249-5265 교환 / 613, 629 담당 : 정보영, 김창수
- (주)일과여행 ☎ 02-755-5570, 팩스 : 02-755-5573 담당 : 전혜정 실장